



김관영 도지사 사군방문(익산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익산시를 방문해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관련기사 6면) <사진=전북도>

전북, 총 계약액 중 21.5% 타지역으로 샌다

좋은정치시민넷, 전북도와 6개 시 계약 현황 분석 결과
전북도 계약액 중 24.1%, 328억 타 시도 업체와 계약
총 계약액 21.5% 2천514억, 지역순환되지 못하고 관외 유출

지역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등 도내 6개 시지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액 중 21.5%인 2천514억원이 타 시도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파악,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얼마나 지역에 순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북자치도는 총 계약액의 24.1%인 328억원이 도외 계약을 통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 계약의 경우 53.1%가 도외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지난해 전북자치도의 총 계약액은 1천361억3천만원으로, 도내 계약이 75.9%, 도외 계약이 24.1%를 차지했다. 계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은 699억9천만원으로 도내 계약이 84.5%, 물품구매 계약은 295억7천만원으로 도내 계약이 91.6%를 기록했다. 반면, 용역 계약은 365억6천만원으로 도내 계약이 46.9%에 그쳐 도외 계약이 53.1%를 차지했다.

도내 6개 시 지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계약액의 21.5%인 2천514억원이 도외 업체와 계약해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지역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54.7%로 가장 높은 관내 계약 비율을 보였고 익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48.9%, 47.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남원시는 34.6%로 관내 계약 비율이 가장 낮았다. 도외 계약 비율은 김제시가 17.1%로 가장 낮았으며 남원시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전주시의 총 계약액은 2천6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31억원(28.3%) 감소했고 관내 계약 비율은 6.6%p 감소한 반면 도외 계약 비율은 3.7%p 증가했다. 익산시는 총 계약액이 1천987억원으로, 전년보다 38억원(1.9%) 증가했고, 관내 계약 비율은 3.2%p 늘었다. 군산시는 총 계약액이 1천817억원으로 전년보다 169억원(10.3%) 증가하며 관내 계약 비율이 5.2%p 늘었다. 익산시의 경우, 공사 계약의 56.3%, 물품 구매 계약의 66.1%가 관내 업체와 계약했으나, 용역 계약의 경우 78%가 관외(도내+도외)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대부분 용역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손문선 대표가 "지방 중소도시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물품 구매, 용역은 지역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커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되고 순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도, CES 2025서 933만 달러 성과··전년비 9배 ↑

전북 기업, CES 참가 197건 상담·933만 달러 성과
(썬하다, ㄱ 시장 개척 신호탄··MYDITEK과 MOU
(썬아이팝, 'XR 올인원 수트' USA TODAY 50 선정

전북자치도가 CES 2025에서 도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전북자치도는 전북 공동관(8개 기업)과 단독관(1개 기업)을 운영하며 기업들의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전북 기업들은 총 197건의 상담과 59건의 협력채널 구축, 총 상담액 933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100만 달러 대비 9배 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전북 기업들의 해외 협력 가능성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확인했다.

주요 성과로는 (썬하다가 아

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농업 정밀 기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MYDITEK과 MOU를 체결하며 해외시장 개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또한 CES 전시장 내에서 진행된 Podcast 인터뷰에 초청돼 기업과 제품을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였다. (썬아이팝은 'EmoTense XR 올인원 수트'로 미국 일간지 USA TODAY가 선정한 'CES 2025 제품 50선'에 이름을 올리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도는 참가 기업의 부스 임차비, 디자인 제작, 항공·숙박비, 통역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했으며 특히 CES 혁신상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쟁력을 갖도록 도왔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도내 기업 및 기관 간 네트워킹 간담회를 개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잠재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다했다. 도는 이번 CES 2025 참가 성과를 바탕으로 CES 2026 참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어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스 공간 조성 방안을 개선하고 전문 통역 지원 확대, 항공·숙박 지원 강화를 추진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CES 2025를 통해 전북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CES 2026에서도 전북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 8대 경제·생활권 중심 국토 전략 핵심 거점 도약

국토교통부, 전북 독자적 성장 가능한 광역권으로 분류
초광역권, 특별자치권과 차별화된 성장 동력 확보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전북을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분류해 국토 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전북자치도의 각종 국가계획 수립 및 반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국토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 이를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인데 전북자치도는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는 다르게, 별도의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를 독자 광역권으로

설정한 이유는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새만금 등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농생명·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자 광역권 설정은, 그동안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작년부터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 건의와 동시에, 양당 원내대표 국회 의원 정책간담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한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독자적 지위를 바탕으로 각종 도로·철도 교통·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등 국가 기간망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대광법 개정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전북자치도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토부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교통 편의성 개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道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지속가능한성장동력 창출”

교육협력 거버넌스 기반 구축·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2025년도 본격 업무 돌입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은 2025년도 비전을 ‘특별자치-교육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로 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도는 이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특별한 전북을 위한 특례 실행력 강화 및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 ▲특별자치시도 공동협력 과제 발굴 등 상생협력 강화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전북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2대 분야 5개 추진 전략 및 13개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2023년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특별법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특별자치도 출

범 이후 현재까지 43건의 조례 정비, 53건의 사업화과제 실행 등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주력했고 올해는 22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14개 지구·특구·단지 특례는 조속한 지정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5대 핵심산업 구체화, 재정 특례 반영 등을 위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도민 체감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3차 특례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민생 및 기업현장’ 등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규제를 발굴해 도민의 일상 속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특별

자치시도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제주·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 연계를 강화해 튼튼한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인 ‘제2회 전북 포럼’은 지난해 ‘농생명산업’에서 ‘친환경산업관광’을 추가하고, 유사포럼인 농생명산업포럼, 새만금정책포럼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명실공히 최고의 전북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와 교육청, 대학 등 지역간의 교육 거버넌스 연계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 안착 추진과 11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운

영 한다.

또한, 교육부 글로벌대학 신규 선정에 도-시군-대학간 공동 대응하고 기존 글로벌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 청소년 수요에 맞는 정책 발굴과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시·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5개소로 확대하는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성호 도 자치교육국장은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등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도·교육청 등과 함께 지역중심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2025 첨단재생바이오 세미나’ 열어 道-도의회 경산위, 전문가와 바이오산업 발전 논의

전북자치도는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조직공학, 오가노이드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2025 첨단재생바이오 세미나’를 개최했다.

6일 도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김대중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윤세영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송인 정책기획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윤세영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의 ‘2025년 레드바이오 산업 중점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박상혁 에이텀즈 공동대표의 ‘바이오 잉크 실용화의 길’ ▲조용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의장의 ‘오가노이드의 새로운 시대와 전북’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도는 2025년 바이오산업 육성 목표로 바이오 기업 30개사 유치, 국

가예산 2천억원(총사업비 기준) 이상 확보, 보스텍 글로벌 협력 거점 구축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소부장,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바이오 소부장 분야는 도가 강점을 보유한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과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지난해 수행한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성화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23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이달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이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2025년 바이오산업 육성 목표로 바이오 기업 30개사 유치, 국

/김관 기자

전북자치도, 올해 전주시 등 22개 기관 대상 본격 감사

구조적 비효율 개선·적극 행정 장려, 공무원 대상 감사 역량 강화 교육 등 실무 전문성 향상 집중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효율 개선과 감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격적인 감사 활동에 나선다.

감사위원회는 6일 본청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감사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감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교육은 감사위원회 신규 직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최근 변화하는 감사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차 교육에서는 김진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공감사의 기본원칙을, 2차 교육에서는 감사원 이성진 수석감사관이 감사보고서 작성 실무를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교육

을 통해 감사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공공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신뢰받는 감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총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감사 대상 기관에는 정읍시, 전주시, 군산의료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포함됐으며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업무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문화 쇄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감사 기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업 감사도 새롭게 추진하며, 공직자들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 감사 시 신규·저연차 공무원 및 업무 담당 기간이 짧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5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한 파랑풍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감사 활동은 단순한 적발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

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도정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의원, “유전자변형 DNA 등 모든 식품에 GMO 식품 입증 표시해야”



윤준병 의원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국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으로 제조·가공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총체적인 관리체계 부실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GMO식품 표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윤준병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은 6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 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식품 표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GMO식품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GMO식품 표시에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GMO식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GMO식품 표시제가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입법 사각지대에 놓인 GMO식품 표시제를 보완해 ‘GMO식품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GMO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제조·가공 이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

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비의도적 혼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식품 등의 경우 GMO식품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GMO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GMO식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미래농업 전문가양성…전북농업마이스터대제9기 입학식

전북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농업분야 최신 기술과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농업 장인(匠人)’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9기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이 6일 입학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

신입생들은 2026년까지 전북농식품 인력개발원, 전북대, 한국농수산대 등 3개 캠퍼스에서 개설된 14개 전공 과정(전공별 정원 2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하게 된다.

제9기 캠퍼스별 운영과정은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본부)에서 6개 과정(수도작, 딸기, 조미채소, 블루베리, 청년CEO딸기, 청년CEO토마토) ▲전북대 캠퍼스에서 4개 과정(한우, 양돈, 양계,

이에 따라 긴급상황 시 대피로 확보)이 6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활용을 방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서울=김영목 기자

양봉) ▲한국농수산대캠퍼스에서 4개 과정(사과, 시설채소, 약용작물, 아열대과수) 등이다.

전공별로 2년 4학기 동안 총 32학점(480시간)을 이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졸업장이 수여되며 과정 수료 후에는 농업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김석면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농업인들에게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며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한파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을 초래 합니다

▶한파 발생 시에는

1
노약자, 영유아들을 위해 난방과온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
외출 시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게 보온에 신경써야 합니다

3
수도계량기,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으로 보온 합니다

4
장기간 외출시 동파 방지를 위해 온수를 약하게 틀어 놓습니다

전주시, 미래세대 위한 ‘청년 1만원주택’ 공급

시세 4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올해부터 호별 1~3만원으로 인하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

전주시가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 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해 ‘젊은 전주, 희망의 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청년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대의 보호와 지원은 미래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자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라며 “청년이 곧 전주의 미래”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별처럼 빛나는 전주 청춘들의 희망과 성장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를 위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확 줄여줄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기존 시세의 40% 수준을 내고 이용했던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해부터 1만 원으로 줄인 ‘청춘★별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총 82호

(상반기 70호, 하반기 12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원룸·투룸·스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1만 원~3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방 1개당 민간주택 월 평균 임대료(43만 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1만 원의 임대료가 산정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 형태에 따라 적게는 9만 원~28만 원을 부담해야 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임주 청년들의 임대료 납부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증금은 50만 원이다.

임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원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청춘★별채는 이용 편의를 위해 대학교 근처 등 청년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공급되며, 세대별로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이 설치돼 입주 때 겪을 수 있는 이



전주시가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 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해 ‘젊은 전주, 희망의 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사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는 앞으로 늘려갈 청춘별채에 대해서는 새로 지은 주택 위주로 공급해 청년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와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삶의 터전, 청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쌓아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청년들이 돌아오고 찾아와 새로운 전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들, 전주서 ‘관광거점도시 공동연수’ 실시

문체부·부산·강릉·목포·안동 등 관광거점도시 참여, 주요성과 및 2025년 추진계획 발표

전주시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도시들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에 모였다.

시는 6일과 7일 이틀간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등 전주시 일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거점도시위원회, 대한민국 5개 관광거점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거

점도시 공동연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관광 인프라와 매력을 갖춘 도시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해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전주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연수에는 국제관광도시인 부산광역시와 지역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와 강원도 강릉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연수 첫날인 6일에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성과 및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컨설팅 방향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첫날 연수에서는 미디어아트 특강과 전주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전주시의 추진 상황을 관광거점도시들과 공유하고 컨설팅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동연수 둘째 날인 7일에는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전

주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거점을 견학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그간 전주가 축적해온 문화의 힘과 전주다움이라는 빛을 발휘해 전주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관광거점도시들과 협력해 국가대표 관광거점도시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AI 확산 방지 총력...방역 현장 대응 강화

부안·김제 가금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방역 수칙 준수 강조 및 신고 및 예방 당부

전북자치도가 최근 부안과 김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며 방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도는 지난 1일 부안군 계화면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31번째 발생 사례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이날 부안 계화면 일대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역 현장을 방문,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부안군 관계자들과 함께 방역시설과 방역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최일선에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특히, AI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가금농가 내·외부 정기적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위험시기 종료까지 가금가에서는 과할 정도의 차단방역을 유지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 가



금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을 지속 축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주시 서신도서관, 초등학생 대상 영자신문 읽기 ‘성황’

서신 리딩스타·영어 책놀이·원어민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등 다양한 영어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재개관한 전주시 서신도서관은 지난달 14일부터 운영중인 겨울학기 영자신문 읽기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자신문 읽기 프로그램은 2개 반으로 나뉘어 4회에 걸쳐 운영된다.

먼저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의 ‘Kids class’반은 ‘The Kids Times’신문을 함께 읽고 있으며,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Junior class’반은 ‘The Junior Times’신문을 활용해 영어 단어와 어휘 등을 익히는 수업을 진행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서신도서관은 영어 특화 도서관답게 ▲제2기 Seosin Reading Star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영어 책놀이 ▲수요 북카페 ▲2월 뉴베리수상 도서 전시 등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550)로 문의하면 된다.

겨울학기 영자신문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한 6학년 어린이는 “영



어로 된 신문을 읽어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다”면서 “방학 중 해외여행을 가

는데 배운 패턴을 꼭 써 볼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대표이미지 확정

이수지 작가 이미지 통해 전주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축제 표현

전주시는 매년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대표이미지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한 국내 그림책 작가와 해외 유명 그림책 작가의 작품 속 가치와 배경을 조명하는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문화축제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표이미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이자 지난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초청작가였던 이수지 작가의 작품이다.

이 작가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 그림책 삼부작’인 ▲파도야 놀자 ▲그림자놀이 ▲거울속으로와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이미지를 살린 ‘여름이 온다’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 2022년 국제 안데르센상과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작가가 그린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대표이미지는 전주에서 그림책을 펼치며 미래로 힘차게 성장해가는 어린이와 함께 즐거운 책 축제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이미지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 행사 관련 포스터와 플래카드, 기념품 등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완산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그림책 원화 전시 ▲작가와의 만남 ▲콘퍼런스 ▲공연 ▲체험 ▲북마켓 등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그림책 원화전시는 6월 29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9명 모집

전주시는 오는 11일까지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전주시민이다. 저소득층과 여성 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되며, ▲공공근로 사업 등 타일자리사업 참여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시는 ▲청년몰 매니저 사업 ▲전주맛매달 홍보지원사업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사

업 등 7개 부서, 8개 사업에 총 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1일 7시간씩 주 35시간이며, 임금은 시급 1만30원과 간식비 1일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혜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24시간 365일 정신응급대응 체계 가동

전북자치도가 정신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 연계와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과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위기개입팀을 중심으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하고,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 8월부터 ‘전북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운영하며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의 신속한 개입과 치료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원광대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협력, 신체 치료와 정신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정신위기 대상자의 신

속한 치료 연계를 지원하는 ‘정신응급 대응 초기치료 체계’를 운영 중이다.

최근 자택 방화 후 2~3도 화상을 입은 정신과적 증상 환자가 경찰과 소방에 의해 발견됐다. 위기개입팀은 신속한 현장 평가 후 원광대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해 신체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 연휴 마지막 날에 가정불화로 신변을 비관한 자살시도자가 긴급 이송된 사례에서도, 위기개입팀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한 신체치료와 정신건강 치료 가 이뤄졌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정신위기 대상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원광대병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영어 특화 서신도서관에서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길 바란다”면서 “앞으

로도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1차년도 평가 통과 이어 올해 2차년도 국비 4.5억 확보…사업 지속 추진

신규 기업 ㈜아레스 지정, 총 4개사 확대…기술사업화·판로개척 맞춤 지원, 연관기업 생태계 조성

전북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한국 수소연합)에서 추진하는 ‘예비수소전문 기업 지원사업’의 지난해 1차년도 평가를 통과하며 올해 2차년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국비 4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진행된 1차년도 발표 평가에서 전북자치도는 사업화 매출 및 신규고용 창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며 도내 기업 ㈜아레스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전환되는 등 우수한 사업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1년+1년 형태의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024년 도내 예비수소전문기업 14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시제품 제작, 특허 및 인증 획득, 전시회 참가,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성장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 결과, ㈜아레스가 지난해 12월 수소전문기업으로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도내 수소전문기업은 기존 두산퓨얼셀, 일진하이솔루스, 코스테크에 이어 총 4

개사로 늘었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1억 5천만원의 기업지원금과 세제 혜택, 국책과제 선정 시 가산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도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기업 성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고 기업 모집대상을 기술력 또는 매출액이 있는 기업(12개사)뿐만아니라 수소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기업

(2개사)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유형별(기술사업화, 판로개척, 컨설팅)로 지원비율을 조정해 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전북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도내 수소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 2024년 12월 수출실적 9.3% 증가…연간 누적 수출 9.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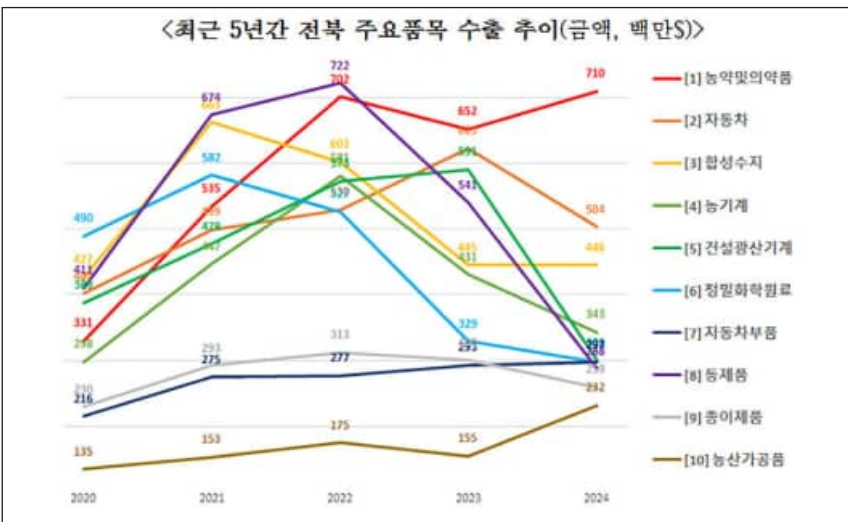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전북 무역 동향 발표…2024년 전북 수출 1위 품목은 농의약품, 수출상대국 1·2위는 G2 국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강표)가 발표한 ‘2024년 전북무역동향 12월 동향 및 연간 종합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액은 2024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5억 1,971만 달러, 수입은 3.0% 증가한 4억 3,252만 달러를 기록하며 8,719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2024년 1~12월 연간 누계실적은 수출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63억 6,370만 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54억 5,565만 달러, 수지는 9억 805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북의 수출은 2020년 코로나 시기 저점을 찍고 엔데믹 이후 기저효과로 22년까지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기침체·러우전쟁·중동사태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지난 한 해 다수의 주력 품목들이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10대 수출



전북도 수출액이 2024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 5억 1,971만 달러, 수입은 3.0% 증가한 4억 3,252만 달러를 기록하며 8,719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품목은 수출규모순 ▲농약및의약품(8.9%), ▲자동차(-19.2%), ▲합성수지(0.2%), ▲농기계(-20.4%), ▲건설광산기계(-49.1%), ▲정밀화학원료(-9.6%), ▲자동차부품(1.4%), ▲동제품(-46.8%), ▲중이제품(-13.6%), ▲농산

가공품(49.7%)을 기록했다.

농약및의약품은 브라질(18.5%)·베트남(97.5%) 등지로 수출이 증가하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수출 1위 자리를 지켰고, 자동차부품은 10대 수출 품목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꾸준한 성장

세를 보이며 수출 효자품목 명성을 유지했다. 농산가공품은 한류 등 K-먹거리의 선전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 규모가 49.7%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출 권역별로는 중남미(증가율 8.7%, 비중 8.2%)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를 보였으며, 국가별로는 3년 연속 미국(증가율 -25.2%, 비중 18.8%)이 수출상대국 1위, 중국(증가율 -5.1%, 비중 16.0%)이 2위를 기록했다. 베트남(증가율 24.8%, 비중 6.7%)과 일본(증가율 -9.0%, 비중 5.6%)이 각각 3·4위로 뒤를 이었다.

수입은 품목별 식물성물질(-11.3%), 농약및의약품(36.1%), 목재류(-12.3%)가 각각 1~3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국가별 수입은 1위 중국(증가율 10.3%, 비중 24.6%), 2위 미국(증가율 54.9%, 비중 13.0%), 3위 일본(증가율 -8.9%, 비중 12.7%) 등을 기록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바이오진흥원,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열어

전북 ‘농생명 산업수도 도약’ 위해 17개 기관 참여, 기업 지원사업 공유…2036 하계올림픽 유치행사도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성장 산업화를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수도로의 도약’을 위해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도정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은 6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농생명·식품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환영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자치도 유치행사도 같이 이뤄졌다.

설명회는 바이오진흥원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식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산업수도로의 도약을 위해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도정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다.

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전북장조경제혁신센터, 노사발전재단, 전북여성가족재단 등 17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기관별 지원사업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주요 기관별 지원사업이 총망라된 소개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함과 동시

에 바이오진흥원과 유관기관 13개 분야에 대한 상담소가 차려져 기업측면에서 궁금한 사항과 현안, 애로사항에 대한 분야별 기관 전문가의 현장 상담도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과 백승하 과장의 ‘25년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도정시책’ 설명과 더불어 농식품

/최준호 기자

전주시, 최근 4년 세무조사 받지 않은 100개 법인 선정 세무조사 실시

전주시는 올해도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꼼꼼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전주시지역 법인 및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100개 법인을 선정해 ‘2025년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

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해 주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사 시기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고, 법인의 세무

조사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관련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상태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하는 조사 시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완산·덕진구청 세무과와 합동으로 농민과 농업회사법인,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의무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주금공 박주량 전북지사장, 올림픽 유치 응원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릴레이 챌린지 동참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는 6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국전력 전북본부장에게서 릴

레이를 이어 받은 박주량 지사장은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며 응원 캠페인을 수행했다.

박주량 지사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다면 침체돼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북지역이 세계적 문화관광 명소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75만 도민들과 함께 2036 하계올림픽의 지역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량 지사장은 다음 참여자로 신한은행 박병찬 전주지점장을 지목하고 응원 릴레이를 이어갔다.

/최준호 기자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지난 2007년부터 진행…금차 총 17가정 왕복항공권·체제비 지원받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총괄본부장 이정환)와 망성농협(조합장 박명남)은 6일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 정착과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모국방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농촌 다문화가정을 대표해 망성농협에서 추천한 다문화가정에게 모국방문 왕복항공권과 체제비가 지원됐다.

농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은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금차 지원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및 자녀로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바쁜 영농생활로 인

해 모국방문의 기회가 어려웠던 전북지역 14개 시·군 다문화가정 총 17가정, 68명이 지원을 받는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다문화가정이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 잘 적응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협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명남 조합장은 “농협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 내 결혼 이주인들이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건단련,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5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재철 회장은 “지속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공사비 상승,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는 극한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전북자치도 및 공공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공사 에타 통과에 주력하고, 조기발주 및 대형공사 적정규모 분할발주를 적극 추진하고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생생톡 고객자문단’ 6기 발대…소비자 니즈 청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5일 본점 9층에서 ‘제6기 생생톡 고객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북은행 ‘생생톡 고객자문단’은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 실현과 상품 개발 및 판매 시 금융소비자의 니즈 파악과 의견 반영 활성화를 위해 구성됐으며, 이번 제6기 자문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전북은행의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이벤트에 아이디어 제안 등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금융소비자



의 시각에서 전달하며, 전북은행은 이를 적극 반영해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권역별 진로진학센터 운영

체계적인 학습 상담 관리·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통합 지원 등 서비스 제공... 경험 많은 대입지원관·과견교사 배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불안 해소 등을 위해 도내 전 지역에서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권역별 진로진학센터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학습 지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되는 진로진학센터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 상담 및 관리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통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주제에 맞는 수요자 중심 상담을 언제든지 제공한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방침이다.

진로진학센터는 전주센터(전주·김제), 익산센터(익산), 군산센터(군산), 정읍센터(정읍·부안·고창), 남원센터(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센터(완주·진안·무주) 등 6개가 구축된다. 전주와 김제 학

생은 전주센터에서, 완주와 진안, 무주 학생은 완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6개 센터에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많은 대학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과 과견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입지원관과 과견교사는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를 찾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습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주일에 한두 차례는 야간상담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권역 지역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이동 진학 컨설팅, 학부모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맞춤형 상담을 하는 권역별 상담센터가 가동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입시 준비와 진로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최우수'

4개 지표 만점 기록... 평가 시행 이후 최고 등급 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나'등급을 받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처리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5개 항목, 17개 지표를 정량·정성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나'등급은 평가 시행 이후 달성한 최고 등급으로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도단위 교육청 중에서는 최고 등급이다.

전북교육청은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 및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민원행정 관리조직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등 4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 · 호주 주요대학교, 국제 교류 협력 강화

호주 커틴대학 · 서호주대학 방문... 교류 프로그램 · 공동 연구 확대 · 복수학위제 추진 · '필링코리아' 조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호주 주요 대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유학생 5천 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 등 방문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이어 호주의 주요 대학을 찾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했다.

양 총장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호주로 이동해 호주 커틴대학과 서호주대학을 방문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커틴대학에서는 Xiaotian Zhang 글로벌 담당 부총장을 접견하고, 기존의 파

견어학연수를 넘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 대학 학생과 교직원 등은 유학생 유치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 전북대 단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필링코리아' 등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어 전북대 방문단은 서호주대학에서도 연구 협력 강화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논의했다.

전북대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이 대학과 농생명 및 공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복수학위제 추진 등에



전북대학교가 호주 주요대학에 방문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뜻을 같이 했고, '필링코리아'에 이 대학 학생 및 교직원들을 초청해 한국에 대

한 이해도도 높이는 방향의 논의를 이어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1,084억 원 매출·49억 원 수출 성과

지난 5일 · 6일 남원 스위트호텔서 '2024년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성과교류회' 개최... 82개 창업기업 참여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이 운영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한 82개 창업기업이 지난해 총 1,084억 원의 매출과 49억 원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창업기업들은 185명의 신규 고

용을 창출하고 15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같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5일과 6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24년 호남권 창업중심

대학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024년 사업 경과보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안내 ▲권역별 유관기관 지원사업 소개 ▲'2025 트렌드코리아' 특강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

행했다.

또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82개 창업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킹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종합평가 최고등급 획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교육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2차년도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대는 고도화형(2유형)과 광역지자체연계형(3유형) 부문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성인학습자 진화형 교육모델 구축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

았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평생교육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보화 자원 구축, RPL 운영을 위한 관련 데이터와 학습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적절하고 우

수한 점 ▲대학·지역 간,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이 우수한 점 등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총장,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챌린지 동참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지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 챌린지(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박노준 총장은 다음 주자로 이진숙 군장대 총장과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을 추천했다. 박노준 총장은 "전북의 발전과 올림픽 유치가 지역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 확신한



다"라고 덧붙이며, 전북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교대 총장,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챌린지' 동참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이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지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병춘 총장은 "2036 하계올림픽이 유치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되었음 좋겠다."며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전주교대는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예방법

외출시 난방 기기 꼭 끄기

전기제품은 사용하지 않을때는 플러그 뽑아 두기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안전인증 을 받은 규격품 사용하기

이불이나 매트리스위에 전기장판을 깔아 두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기

난방기 주위에 인화물질을 두지 않기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 어양동 주민숙원 해결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어양동)(사진)이 추진해온 영등중학교 인근 변전소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오는 6월 완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랜 기간 표류하던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어양동 지역구를 둔 오임선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평가된다.

1998년 영등변전소 준공 당시 주거시설이 없었지만,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영등중학교가 들어서면서 3,000여 명의 주민과 학생들이 송전탑 인근에서 생활하게 됐다. 특히, 놀이터와 학교 운동장이 송전탑과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전자기파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2017년 어양동 동도미소드림아파트 주민 340명이 영등변전소 이설요청 진정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지중화 사업에 대해 익산시, 전북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중화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성사되면서 송전탑 4개를 철거하고 1.4km 구간의 고압 송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025년 전국 사업체조사 실시

군산시는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조사기 준일(2024. 12. 31.) 또는 조사일 현재 군산시 관내 산업활동을 하고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10개 항목이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나 대상 사업체가 비대면 조사를 원할 경우에는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사업체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오는 9월에 잠정 결과를 공표하며, 12월에 확정해 군산시 누리집 게시 및 국가통계포털에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사업체 조사와 관련해 질의나 문의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산시 통계조사실(063-454-7932~8) 또는 통계청 콜센터(080-001-202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여성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위한 인턴 모집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참여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기술 습득의 기회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취업 후 안정적인 고용 유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3개월 동안 매달 80만원씩 총 240만원의 채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인턴 참여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인턴 종료 후 6개월간 근속하면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돼 취업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인턴 참여 자격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에게 주어지며, 참여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최근 3개월 이내 권고사직이 나 인위적 감원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33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여성은 새일센터에 구인·구직 등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새일센터(063-539-8217)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중소기업 지원 210억 투입

자금경영난 해소·경쟁력 향상·인재경영 근무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21개 사업 추진

익산시가 지역 산업의 버팀목인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을 쏟는다.

시는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를 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10여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추진 사업은 ▲자금경영난 해소 ▲경쟁력 향상 ▲인재경영·근무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21개 사업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한다.

◆ 자금경영난 해소-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인구관심지역 특례보증 금융지원

시는 185억 원 규모의 융자금 이차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속

통을 퇴위주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당 2억 원 한도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 이자의 3.0%를 지원한다. 특히 일자리 우수기업, 여성기업, 향토기업은 추가로 0.5%가 가산돼 최대 4.5%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경쟁력 향상-기술, 마케팅 등 육성으로 강소기업 도약 발판 마련

시는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육성지원 사업은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수출기업 보증보험 지원 ▲여

성기업 마케팅 지원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국내외 시장개척단 지원 등 5개로 총 5억 원이 투입된다.

◆ 인재경영·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보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

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구직자들이 찾는 일터로 만들어 가기 위해 근로여건 개선에 힘쓴다. 이를 위해 사업장 사고 예방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중장년(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 등 14개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시기별로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업일자리과(063-859-5746, 5743)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구도심 상권 활성화 성과공유회 성료

창업지원·온라인 판로 확대·소비 유행·프로그램 운영·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 사업 방향성 제시

전북 군산 구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상권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공유회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지난 6일 군산공설시장 청년물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군산시의회 경제건설 분야 의원들과 기관단체, 구도심 권역 내 창업가 2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 교류 및 사업 성과물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창업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새로운 소비 유행과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해 점점 어려워만 지는 구도심 골목상권의 부활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20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군산상권활성화사업은 구도심 상권의 노후화된 상권환경개선과 구도심 권역내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군산의 경우 지역 창업가들이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점차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폐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활력을 찾아 만들어 낸 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부처 간 협력사업의 하나로 전 통시장 상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친환경생선건조장 건립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로 상인협업화(수산물협동조합)운영 등으로 각종 수상 경력과 실제 매출 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선진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 구도심 상권 내에서 창업한 청년 상인 가계도 40여 개로 현재까지 안

정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상품 개발이 빛을 보면서 해외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에 대한 평가도 높다. 2021년 전국상권활성화우수사례로 중기부장관상 수상했다. 2023년에는 군산시 상권에서 최초로 대통령 상을 수상하면서 전국 최고의 상권사업으로 공인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군산시와 사업단은 지역 상인, 청년창업자, 상권지원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상권활성화 모델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한국초등태권도연맹 선수권대회' 만반의준비

대회 기간 중 숙박시설·대물림맛집·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등 적극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

익산시가 '제4회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개인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개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

맹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후원한다. 대회 기간 선수단 2,400여 명을 비롯해 임원 등 총 4,100여 명이 익산에 체류한다.

대회 일정은 8일 체제·품새 리그를 시작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페더·미들·헤비급별 겨루기가 진행돼 태권도 꿈나무들의 승부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과 함께 대회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경기장 안전관리, 의료 지원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이번 대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숙박시설을 비롯해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등을 방문객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찾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도전으로 도약하자”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전북권 광역철도망·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지역 현안 청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일 사·군 방문 일정으로 익산시를 찾았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가 담긴 걸음이다. 익산은 전주와 김제, 군산에 이은 김 지사의 네 번째 방문지다.

이번 방문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난 것이 특징이다. 도지사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에 중점을 뒀다.

이날 오전 익산시 신청사에 도착한 김관영 지사는 시 의장단과의 사전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합

께 익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바이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해 통합원광대 글로벌대학 30 선정,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전북 농생명사업 선도지구 선정 등 지난해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전북도와 함께할 역점 사업으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권 광역 철도망 반영 ▲전북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개정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이어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지사는 700여 명의 시민들과



만나 '도전경성의 초심, 도민 약속의 실천, 초지일관'이라는 주제로 도정 철학을 공유했다. 또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365일 하나돌봄어린이집' 선정

주말·공휴일 영유아 시간제 보육 제공... 시간 당 3,000원

익산시가 돌봄 공백없는 촘촘한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하는 민간협력 공모사업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에 국공립 익산어린이집이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5개 어린이집 중 전북에서는 익산어린이집이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하나돌봄어린이집은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등의 사유로 자녀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에 영유아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달 익산어린이집, 하나금융공익재단,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4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부터 보육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대상은 긴급 또는 일시 보육이 필요한 1~6세 취학 전 영유아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요금은 보육료 지원 대상은 무료, 보육료 미지원 대상은 시간당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라는 가치 아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과 야간 시간제 초등 돌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하나돌봄어린이집 공모 선정으로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의회 박일 의장, 하계올림픽 유치 챌린지 동참

정읍시의회 박일 의장은 6일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 챌린지(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개되는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김관영 도지사를 시작으로 기관사회단체장, 체육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박일 의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읍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일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순기 NH농협 정읍시지부장과 김잔디 정읍 아산병원장을 지목했다. GBCH 챌린지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군산시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예산은 2억원(시비 100%)이며 100가구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2025년 1월 21일 기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관련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문과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지원 4억 2천만 투입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4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홍수해, 폭염, 설해 등), 화재, 가축질병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시 손해액의 60~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을 포함해 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꿀벌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관련 법인이다.

보험료는 농가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 50%, 지방비(도·시·비 포함) 25%가 지원되며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단,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비에 한해 총 보험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군,308억투입‘농촌중심지’본격화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기대

부안군은 지난해 농림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308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 214억원을 포함한 예산이 편성돼 농촌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는 4개면(줄포·계화·백산·상서면)을 중심으로 한 생활 SOC(사회적 기반시설) 시설 확충과 문화 및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인프라 확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개선을 목표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오는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의 기본계획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정 짓고 오는 6월 최종 고시 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농촌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쾌거

전년 대비 2개 등급 상향 민원취약계층 보호·신규시책 발굴 ‘호평’

고창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군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2단계나 끌어올린 것으로,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평가 항목 중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도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민원처리공무원과 민원인간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호평이 잇따랐다.

고창군은 다문화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각종 민원서식을 외국어로 작성해 배포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8대)의 발급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고, 저녁 시간 및 휴일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정을 방문한 민원인이 쉽고, 편안하게 용무를 마치

고 갈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면서 배려하는 진철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일자리센터, 질 높은 윈스톱 취업서비스 박차

지난해 7월 개소 이후 143명 취업 연계, 일자리컨트롤 타워 역할 톡톡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김제일자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7월 개소해 일자리 종합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제일자리센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맞춤형 고용 창출을 진행하고 있다.

개소 이후 센터는 구직자 280명, 구인처 95건을 발굴했으며,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의료·복지 기관 등 총 143명의 취업 연계 실적을 거뒀으며, 일자리 매칭데이,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 관련 행사와 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일자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올해, 센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 고용 현황 분석 및 수요 파악을 위



한 내·외국인 고용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고용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접근성 높은 시내 중심부로 센터 장소를 이전해 고용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 이용률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5년에도 다양한 고용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 농기센터 방문…현안사업 점검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가 지난 5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고 농업분야 현안사업을 점검했다.

김영식 부군수는 성송면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하고, 고수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내 농산물 안전분석실, 조직배양관, 토양검정실, 미생물 배양장, 복분자 양액재배 시설, 고구마 자연광 순화 하우스 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영식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시설현

황과 주요 추진업무에 관한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농업 현안과 발전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설에 따른 농작물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청년 인규유입과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 성송면에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고 있다.

또 실증시범포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목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토양검정실에서는 농작물 재배지에 대한 토양검

정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는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463성분을 무료로 분석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등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작년에 유용미생물을 450톤에서 900톤으로 확대 공급했고, 올해 4월 말부터는 읍·면으로 유용미생물 배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농가 실질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으뜸 정책 TOP 10’ 선정

‘소통으로 더하는 자율·친절·적극행정’ 1위 차지

부안군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온라인(국민생각함)과 오프라인(읍·면사무소)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전반기 부안 으뜸 정책 TOP10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793명의 군민이 참여했으며 지난 2024년 4분기 부안군 소식지를 통해 배포된 주요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10대 분야 24개 정책에 대해 1인당 5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및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급 달성 등 ‘소통으로 더하는 자율·친절·적극행정’이 1위(381표), 2025년도 농업재해보험 본인 부담률 0%로 자연재해보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장하는 ‘농업재해보험 농가부담 제로화’가 2위(284표), 2023년 3365명·2024년 3920명·2025년 5015명 등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활동 지원’이 3위(282표)를 차지했다.

또 4위 ‘부안형 푸드플랜 확산’, 5위 ‘전국 최초 대학교 반값등록금



실현’, 6위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 7위 ‘어르신 건강증진 의료비 지원’, 8위 ‘부안 도심 재정비 및 활성화’, 9위 ‘수소산업 퍼스트 무버’, 10위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이 10대 으뜸 정책으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로 토대로 지난 정책을 되돌아보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향후 군정 방향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미래 발전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올해 선정된 99개소 사업장, 수시 점검 통해 환경규제 준수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6일 202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선정된 99개소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장마철, 추석 연휴 등 계절별 취약시기 수시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사전 예방하고, 기업의 환경규제 준수를 강화하고자 한다.

시는 지난해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 실

시했으며 배출시설 무허가 등 7건의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청이 송치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철저히 관리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사업자들도 환경규제를 준수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스마트팜 사업 대상자 애로사항 청취 나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간담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6일 농업 미래를 선도할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2025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 5명이 참석해, 사업추진 절차 및 참고사항 안내 후 대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간담회를 통해 보조사업이 처음인 청년들에게 절차 및 참고사항 안

내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생기는 주요 문제점을 미리 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보조사업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 및 시군 우수 청년농들이 김제시에 스마트팜을 조성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수용해 청년들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과수화상병 예방 겨울철 전정작업 당부

고창군이 사과·배 등 과수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철저한 껍질 제거 전정작업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줄기나 과실이 시들어 불에 탄 듯 검게 변해 고사시키며 아직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이다.

고창군은 동계 전정 시기를 맞아 농업인들에게 사전 껍질 제거와 전정 가위 소독 등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 읍·면 예방 홍보 플래카드 게시, 예방 요령 문자발송, 교육,방제약제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이 법제화되면서 사과·

배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의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매, 주기적인 예찰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조사 거부 또는 방해·기피는 40%, 의무교육 미이수는 2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가 감액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발생하면 치료제가 없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작업시 소독과 과원 관리 등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관, 10일부터 직장인 대상 상반기 수강생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평생학습관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김제 시민 및 김제시 소재 직장인(성인)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 및 능력 UP, 취업 GO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교육 과정은 오는 3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16주 과정이며, 능력 UP, 취업 GO 교육과정은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문화·예술 분야, 인문·교양 분야 등 2개 분야 상반기 교육은 40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직업·능력 분야(자격증 취득 과정)인 능력UP, 취업GO 교육과정은 10개 과목으로, 총 수강생 900여명을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선착순 인터넷 접수로 시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수강신청 후 안내된 계좌로 수강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확정된다. 1인 3강좌까지 신청 가능하고 김제 시민 및 김제시 소재 직장인 등이 등록 가능하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은 “다채로운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평생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겨울철 화재 대비 자가 점검 철저 당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겨울철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전선의 합선 또는 단란에 의한 발화, 누전에 의한 발화, 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히 건조한 겨울 날씨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으로는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 뽑아두기, 안전 인증(KC마크) 제품 사용하기, 난방·전열기기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하고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개폐기(두꺼비집)는 습기나 먼지가 없는 위치에 부착하기 등이 있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사용요령 준수와 수시·정기 점검이 필수적이며 군은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 자가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소방안전 예방요령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전국 초등학교 배드민턴팀 합동 전지훈련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국 초등학교 배드민턴팀이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합동 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개교(구미봉곡초, 경기안흥초, 화산만연초, 광주산월초, 전주인후초, 정음동초, 김천부곡초, 순천부영초, 울산무거초, 광주계림초, 김제김산초, 대전매봉초) 12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4일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시 전체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김제시배드민턴협회 이병순 회장 등 관계자들은 훈련기간 동안 꾸준히 전지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2036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퍼포먼스에도 참여하며 훈련의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찾아 동계 전지훈련에 매진했던 선수들과 지도자, 김제시배드민턴협회 이병순 회장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김제시가 스포츠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계절 온화한 기후 및 편리한 교통을 바탕으로 스포츠마케팅 메카 도시로 거듭나고, 지역 경제 활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 라이프케어산업 특구 지정 추진

17만 평 규모 남원일반산업단지 라이프케어 중심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8개 기업 682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지정 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남원시가 라이프케어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주도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이프케어 산업은 제약, 뷰티, 의료 기기 등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질병의 예방 진단과 치료목적의 제약 및 의료기기, 뷰티화장품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등이 속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 대표 특구로 지방정부가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의 특구로서,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남원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전북자치도 혁신성장의 6대 핵심 선도사업인 라이프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상

반기 17만 평 규모의 남원일반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앞서 8개 기업과 68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남원시 특구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도에 제출했으며, 도에서는 남원시와 함께 익산, 고창을 포함 39만 평 규모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기반 글로벌 라이프케어 구축을 비전으로 ▲(산업혁신) 바이오 소재기반 라이프케어 신산업 육성 ▲(기술혁신) 바이오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화 ▲(생태계 구축) 라이프케어 산업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 등 3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

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바이오, 스마트팜, 곤충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법인세 및 취득·재산세 등 세제 혜택,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5%~10%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의 기업유치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관의 기업 이주지원 보조금 지원 ▲국내 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5%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15% 상향 등의 자체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지자체 홍보대상 '축제부문' 대상 수상

‘K-컬처’ 춘향제 가치 담은 애프터 뮤비 작품, 대상 패거

남원시는 2025년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축제부문'에서 대상을 받는 패거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2025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지자체 혁신, 콘텐츠로 표현하라!"를 슬로건 아래 주호영 국무부위원장,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장 등이 공동 주최,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 주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돼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를 공모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남원시는 94주년을 맞은 춘향제의 글로벌화 및 K-컬처 중심 축제로의 변화를 담은 애프터 뮤비를 작품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100년을 바라보는 춘향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축제 뒤 숨은 공로자의 노력을 후반부에 담아 춘향제의 사회적 가치까지 조명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제95회 춘향제가 광한루 일원에서 펼쳐지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며, 수상작은 남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 '남원시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30개소 규모 부스 운영자 모집

완주군이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릴 모악산 웰니스 축제 부스 운영자를 모집한다. 6일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민과 도내 소재 단체를 대상으로 30개소 규모의 부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 행복, 치유' 주제로 예정한 전시, 체험 콘텐츠 및 먹거리 판매 계획이 있거나 인근의 관광자원이나 체험 홍보를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완주군 홈페이지(www.wanju.go.kr)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방문 또는 메일로 14일(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관광체육과 관광축제팀(063-290-3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3회째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벚꽃이 흠날리는 오는 4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간 구이면 모악산 축구장 및 도립미술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광트렌드에 따라 웰니스(웰빙, 건강, 행복)를 주제로 한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한국생활개선순창군연합회 제16대 임원 취임식 개최

한국생활개선순창군연합회(회장 한경연)는 6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16대 임원 취임식과 2025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경연 신임 회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부회장에 마금옥 북흥면생활개선회장, 감사에 박종숙 금과면생활개선회장과 김연순 동계면생활개선회장 각각 선임됐다.

또한, 연합회는 농촌 발전과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송기홍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공로를 치하했다.

한경연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선배 회원들이 쌓아온 농촌 여성의 권익 증진 정신을 이어받아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시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이 논의됐으며, 회원들은 지역 농촌 사회의 현안 해결과 생활개선훈동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열려...민속놀이 이벤트도 마련

오는 8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남원시 요천심수정 일원에서 남원청소년육성회(회장 박정민)가 주최한 제24회 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인 연날리기를 알리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들은 각자의 창의력과 솜씨를 발휘해 자신만의 연을 만들어 소망과 염원을 담아 날릴 예정이다.

남원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날리기 종목이 있으며, 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시상과 함께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제기차기, 투호, 고리 던지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으니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면 된다.

박정민 남원청소년육성회 회장은 "이번 연날리기 대회는 청소년들이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에 참여해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선발...인력난 해소 기대

라오스 현지 면접으로 40명 선발...한국어 교육 및 이탈방지 사전 교육 강화

순창군은 심각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6일 라오스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면접을 실시해 40명의 우수 인력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었기남 순창부군수를 비롯한 순창군 대표단은 라오스 핫사이퐁군을 직접 방문해 현지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선발 과정에는 순창군과 순창농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라오스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구축했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체력 검사, 색맹 테스트, 심층 면접 등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군은 이번 면접에서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체력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 적응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최종 선발된 40명의 근로자들은 한국 입국 전까지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순창군은 지난 5일 라오스 핫사이퐁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의 현지 면접을 진행하고 40명의 우수 인력을 최종 선발했다.

거치게 된다. 군은 이들을 위해 비자 신청 지원은 물론,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의 이해, 농업 기술 기초 교육, 안전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을 강화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순창군에서는 지난해 3,113명의 근로자가 786개 농가에서 활약하며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했고, 현장 평가에서 농가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하며 신뢰도를 높였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국비 13억 확보...바이오기업육성 본격 착수

남원시는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하는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농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캡티브종합

기술원등 기관과 협력해 "(과제명)미래유망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역혁신 거점 활성화 및 사업화 기술지원"을 통해 남원시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 강화와 사업화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소재 기반 기술경쟁력 강화, 유망 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사업화 지원으로 신성장 사업모델을 발굴하는데 목표로 한다.

한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곧

충,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바이오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 성장지원 전문 기관이다.

또한 2026년 개관예정인 바이오테스팅센터를 통해 바이오기업들의 바이오소재·제품의 시험분석, 인증, 분석, 임상시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학당’ 5개소 추가구축...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진행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완주학당을 5개소 추가 구축하고, 160명의 학생을 모집하는 패거리를 이뤘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학당은 학생들의 다양한 지능을 계발하고 창의적 학습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공간으로, 완주군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군은 지리적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 읍면별로 완주학당을 5개소 추가로 구축해 코딩, 창의과학, 바둑, 서예 등 다양한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동안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은 사업비, 교육장소 조성 등의 어려움으로 22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주군의 교육발전특구사업 일환인 완주학당이 5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160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활발한 운영 중에 있다.

추진해 왔으나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후 2024년 하반기 81명에 이어 올해는 160명을 모집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 김관영 도지사 사퇴 촉구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은 "완주군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세 차례에 걸친 통합 시도로 인해 큰 갈등과 피해를 겪어왔다"며, "2013년 주민투표에서도 55.35%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2024년 상반기 55%, 하반기 66%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일

부 찬성 단체와 전주시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위원회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완주군민을 말살하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김관영 도지사는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즉각 회수하고, 파기할 것 ▲김관영 도지사는 통합 추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10만여 완주군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김관영 도지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건강관리 대상자 모집



순창군이 오는 10일부터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한 순창군민이다.

이번 서비스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참여자들은 순차적으로 사전

평가를 받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활동량계가 지급되며, 개인의 질환 여부에 따라 블루투스 혈압계와 혈당계도 추가로 제공된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오늘건강' 스마트폰 앱과 지급받은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걷기나 물 마시기 등 개인별 맞춤 건강미션이 부여되며, 임무 수행 후 앱에 입력하면 전문 인력이 모니터링하고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순창군민은 순창군보건지원 지역보건팀(063-650-5218, 5266)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박차

완주군이 지난 5일 군청에서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및 개별주택가격 담당자,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개별부동산 가격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추진 일정에 추가된 협의 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주택간 도시특성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고 토지·주택 특성 변경사항 및 불일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군은 도내 타 시군과는 달리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같이하며 높

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자랑하고 있다.

회의 내용 및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올해 완주군은 사유지 19만 567필지와 국공유지 9만 2,115필지를 포함한 28만 2,682필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진행한다. 또한, 1만 9,763호의 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 후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토지(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군,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12곳 방문 구강관리사업 실시

진안군은 올해 말까지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12곳을 선정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경로당으로 선정된 곳에 공중보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 및 시린 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노년기 구강질환 관리법, 틀니 사용법 및 세척법 교육 등을 진행한다.

특히 개인별 구강 상담과 맞춤형 잇솔질 관리 및 틀니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그에 맞는 구강위생용품 배부와 실습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구강관리가 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선정 경로당 중 한 곳인 주천면 장등경로당 이용자 이 모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 데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해주니 고맙다. 치간 칫솔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며 호응을 보였다.

국은희 건강증진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어르신들의 구강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의 삶이 되도록 지속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는 우울증 예방교육’ 운영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노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해 산서면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찾아가는 우울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우울증 예방교육은 마을회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행되며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우울 척도를 활용해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에게는 1:1 상담,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점소 보건사업과장은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해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상담 문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063-350-2800)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들, 장수군노인복지관 찾아온정 나눠

장수군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연수 중인 제1기 5급승진리더과정 20분임 교육생들이 지난 5일 장수군 노인복지관(관장 정호영)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제1기 5급승진리더과정을 수료 중인 20분임 교육생 22명은 장수군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점심 준비 및 배식 봉사를 펼치며 봉사의 보람을 만끽하고 리더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졌다.

이날 자원봉사에 참여한 교육생은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과 만나며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호영 관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장수군을 찾아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국의 5급 리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봉사활동이 어르신들과 교육생분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농촌공간정비사업 42억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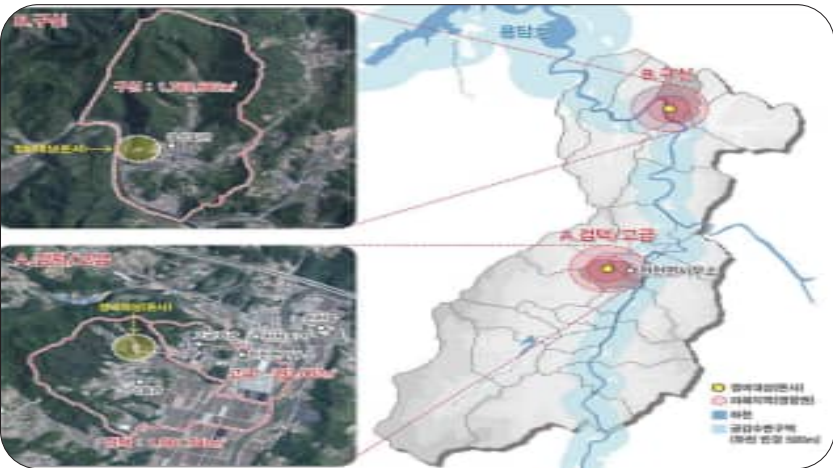
농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2027년까지 천천면 일원3,833㎡ 면적 돈사2곳 철거 및 정비

장수군은 천천면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부터 도입돼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 및 이전에 주거환경과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비한 부지를 활용해 농촌 정주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장수군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그동안 마을과 인접한 축사의 악취 등으로 잦은 민원이 제기됐던 천천면 봉덕리와 연평리 일원 3,833㎡ 면적의 돈사 2곳을 철거 및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정부의 재정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



장수군은 천천면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4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으며 이번 사업이 국도비 비율이 65%에 달하는 공모사업으로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예산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크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악취로 힘들어했던 주민분들께 만족감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행복콜 버스·택시 사업’ 주민 호응

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주민들 필수 교통수단 자리매김

임실군이 운영 중인 ‘행복콜 버스·택시 사업’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복콜 버스·택시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 복지서비스로, 마을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나 전통시장 등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행복콜 버스는 35개 마을, 행복콜 택시는 47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들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행복콜 버스는 이용 1시간 전 행복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는 수요응답형 시스템으로, 주중에 운행되며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행복콜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월요일과 장날



에 운행된다.

운행 시작 이후, 행복콜 버스·택시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이며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복콜 버스·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일상의 자유를 되찾아준 서비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행복콜 버스·택시가 교통 오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혜택 강화

융자금 이율 기존 1.5%에서 1%로 대폭 인하…경제 활성화 기대

진안군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이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혜택으로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융자금 이율을 기존 연 1.5%에서 1.0%로 대폭 인하해 농어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 더욱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농어촌 소득지원금을 통해 농어민들이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인 농어업인은 최대 5,0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상환 조건은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는 2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융자금은 재료비, 기계장비 구입, 인건비, 사업장 수리 등에 활용 가능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가들이 기금 활용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창출과 농산물 유통으로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히고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독립 예술영화 품은 ‘무주 시네마 클럽’ 인기

무주산골영화관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무주 시네마 클럽’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 시네마 클럽은 영화 정기 상영 프로그램으로, 무주산골영화관에서 특정 주제에 맞춘 독립 예술영화를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상영한다.

2월에는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수상작 4편을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박수남, 박마의 감독)는 ‘뉴비전상’과 ‘무주관객상’ 수상작으

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수작이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딸에 대해’(이미랑 감독)는 엄마와 딸 그리고 딸의 연인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풀어내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서울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남녀 이야기가 다섯 배우의 연기 앙상블로 빛나며 ‘비컨힐 크리에이티브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작품 ‘미망’(김태

양 감독), 농촌 생활의 주기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 ‘영화평론가상’을 수상한 영화 ‘지난 여름’(최승우 감독)과도 만날 수 있다.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문화정책팀 임정희 팀장은 “무주 시네마 클럽을 통해 상업영화 외에도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들을 접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망월이야’ 정월대보름 행사 열려

당산굿·쌈굿 등 액운 물리치는 풍물놀이 펼쳐질 예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오는 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안고원 고추시장(진안읍 군산리 479-24)일대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한다.

‘망월이야’ 정월대보름 행사는 전라좌도 진안 중평굿보존회(대표 이승철) 주관으로 당일 오전 진안읍 군하리 내 당산나무(우화산, 진안군청 뒤 당산나무) 아래에서 당산굿을 하며 시작을 알린다. 이후 진안을 일원에서 쌈굿, 가가호호 마당밭이 등 액운을 물리치는 흥겨운 풍물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라좌도 진안 중평굿보존회는 2020년 ‘진안중평농악’(종목)으로 전라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대보름’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농경 생활에서 중요한 세시풍속 중 하나로, 달맞이와 한 해 풍년과 복을 기원하며 부럼깨물기, 더위팔기, 귀밝이술 마시기와 같은 풍습을 즐겨왔

다. 또한 쥐불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도 함께 어우러지는 날이다.

이에 8일 행사장에서는 사전 행사로 소원지 쓰기, LED쥐불놀이 만들기, 제기차기 만들기, 세시민속놀이 등의 다채로운 문화체험이 마련된다. 오곡밥, 나물 등 보름음식도 함께 나누며, 대보름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중평굿보존회에서 준비한 부럼주머니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특히 보름달이 뜨면 달집에 불을 지피고 달집 주위를 돌며, 한 해의 액운을 날리는 중평굿보존회의 액막이굿, 정월대보름굿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난 액운과 부스럼을 모두 달집에 태워버리고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가득한 소원을 빌기 바란다”며, “대보름 달처럼 밝고 환한 을사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본격화

임실군이 올해에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관내 모범 수렵인 40명을 대상으로 포획허가증을 발급하고, 지난 3일에는 포획 활동 시 준수사항 및 총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마쳤다.

도내 최대 규모인‘임실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앞으로 농작물 피해 농가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해 멧돼지 1,109두, 고라니 1,400두

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농형철조망 설치지원사업 예산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2억원을 확보하는 등 임실군의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은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고 멧돼지·고라니 등을 중점적으로 포획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의 소득 증대를 극대화하고,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걸어서 노담 속으로’ 챌린지 운영

무주군이 2월 걷기 챌린지, ‘걸어서 노담(NO! 담배) 속으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상 속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금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워크온(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을 통해 2월 한 달간 15만 걸음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건강관리 용품(오션전 마사지기 등)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어플리케이션 설치·가입 후 ‘걸어서 노담(NO!담배) 속으로’에 접속, ‘2월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목표 달성 후에는 응

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무주군은 주민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 절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위험군 건강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건강모니터링과 검진, 대면상담 등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축제 행사를 찾아가 기초건강검진과 상담 등을 진행하는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운영·관리 총력

임실군이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운영·관리 준비를 위해 월동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조성된 장미원의 생육환경 극대화를 위해 지난 1월 동계방제, 유기물 시비, 에버랜드, 서울대공원을 벤치마킹했다.

또한, 2월에 10개월간 근무하는 전문성을 갖춘 1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중대재해법 교육, 장미 특성 이해, 생육 관리 및 전정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미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에버랜드, 서울대공원 장미원을 방문해 임실군 장미원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장미품종을 장미 전문

공급 농장인 로즈팜에서 공급받기로 했다.

3월에는 장미원 조성 후 부족한 트래ilis를 설치, 덩굴장미를 식재해 그늘이 마련된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조성된 장미원은 사계절장미원 2.65ha와 유럽형 장미원 3.87ha에 22,000주를 식재해 유럽풍의 치즈캐슬과 어우러진 멋진 공원으로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군은 2025년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해 가족과 연인이 방문하는 5월에는 꽃향기 가득한 장미와 함께하는 멋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유)K조경, 진안사랑장학재단에 2백만원 전달

(유)K조경(대표 배지연)은 진안의 미래를 밝히는 데 힘을 보태고자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배지연 대표는 “진안은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곳으로, 젊은 인재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K조경 배지연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 해주신 장학금은 진안군의 미래를 빛낼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답했다.

군은 이번 배 대표의 장학금 기탁이 지역사회에의 귀감이 돼 군 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변암면 의용소방대, 소외된 이웃 위해 100만원 기탁

장수군 변암면 남·녀의용소방대(대장 형성진·조석순)는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변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변암면 남·녀의용소방대원 36명은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자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사랑의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형성진 대장은 “겨울철을 맞아 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이 작은 정성이 변암면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변암면 남·녀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 지킴이로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 예방 캠페인, 각종 재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봉사활동을 펼쳐 사랑과 나눔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읍 오순도순가족봉사단, 라오스서 봉사 펼쳐

지난해 태국 방콕 봉사활동 이어 올해도 이국 땅에 한국 문화 전해

정읍시 오순도순 가족봉사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과 한국의 문화를 전했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오순도순 가족봉사단(이하 봉사단) 20여 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라오스를 찾아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의 봉사활동에 이어 올해도 이국 땅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8가족, 23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라오스 방비엤에 위치한 무앙쓰엀 학교를 방문해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준비한 학습품을 기증했다.



정읍시 오순도순 가족봉사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과 한국의 문화를 전했다.

또한, 봉사단을 이끄는 최환열 재능을 살려 이·미용 봉사활동을 회장(천사머리 미용실)은 자신의 진행하며 현지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봉사단은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놀이인 실뜨기 놀이를 즐기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낮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웃음과 따뜻함으로 소통한 봉사활동은 라오스 현지 학생들에게도, 봉사단원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최환열 회장은 “봉사는 수혜자 뿐만 아니라 봉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내년에도 가족봉사단과 함께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제16대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이은진 씨 당선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세계평화여성포럼 회장으로 활동…3년간 이글 예정



회장으로 선출됐다.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이은진 회장을(사진)을 제 16대

이은진 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과 세계평화여성포럼 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당선을 통해 3년간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제16대 회장선출과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주요활동사항 협의로 진행됐다.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1995년 조직돼 현재 13개 단체 2천 746여 명의 여성 회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남원지역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자원봉사, 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제16대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장에 선출된 이은진 회장은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회원들과 합심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남원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상관면 김대곤이장, 사랑방에 냉장고 후원

완주군 상관면 월암마을 김대곤 신임 이장이 마을사랑방에 냉장고를 쾌적했다.

6일 상관면에 따르면 김 이장은 마을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마을 사랑방의 열악한 상황을 파악하고, 냉장고를 전달했다.

또한 전기시설 노후화로 화재의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유지보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 이장은 “사랑방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

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는 사랑방에서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방을 이용하는 월암마을 어르신들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큰 선물을 해 준 이장의 따뜻한 마음이 고맙고,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월암마을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들, 고창군에 기부 행렬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뜻한 온정의 기탁이 지난 3일과 4일에 이루어졌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1기 5급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분임 중 2개 분임이 고창 현장학습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를 했다

교육생 중 김용진농업정책과장 8분임 22명, 김애숙 공음면장 17분임 21명이 고창군에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41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5급 핵심리더과정에

참여한 고창군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분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고창에 방문해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청정한 고창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다고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공직 생활을 응원하겠다”며, “기부금은 고창의 인재 육성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 조촌동지사협, 홀몸 어르신을 위한 생일잔치 지원

6일 군산시 조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은 72세, 70세 생일을 맞은 두 분의 홀몸 어르신 맥을 방문해 생일상을 지원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조촌동지사협이 마련한 떡케이크와 함께 미역국, 불고기, 잡채 등으로 넉넉하게 차린 생일상 앞에서 참석자들은 선물을 전달하고 생일 축하를 부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6년째 진행하고 있는 ‘홀몸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지원사업’은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이다. 지금까지 100명의 어르신들이 사랑의 생일상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생일상 지원 대상자 22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심층 상담도 진행했다. 이 중 10명의 어르신들에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등급 및 맞춤형 급여 신청 ▲사례관리 및 민간지원 연계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도 함께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했다.

황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홀몸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며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으로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유)한양이엔지, 무주군에 장학금 2백만 원 쾌척

(유)한양이엔지에서 지난 6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양현민 대표는 “무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차 무주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을 뒷받침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유)한양이엔지는 무주읍에 위치한 산림설계감리회사로 2022년부터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익산시 팔봉동 환경사랑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팔봉동 행정복지센터는 팔봉환경사랑회(대표 이종선)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팔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봉관, 신문식)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팔봉환경사랑회는 팔봉 토박이들이 모여 2002년부터 독거노인 효도 관광, 명절 경로당 배미 지원, 연말 이웃돕기 등 살기 좋은 팔봉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선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도 1,4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기탁하며 지역 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조봉관 팔봉동장은 “변치 않는 나눔에 정말 감사드리고 성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노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1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 한다

2 시력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3 안전한 가정 환경을 만든다

4 복용하고 있는 약중 현기증을 일으키는 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一事一言〉



내 주변에 숨어 있는 ‘내란 동조자’ 감별법(2)

오태규
언론인

저는 범위를 좁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누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감별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내란 옹호자 감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설 연휴 기간에 많은 친지들을 만나 계엄이나 내란 얘기를 화제에 올릴 수밖에 없을 테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엄을 하려면 프로답게 확실하게 해야지, 아마추어처럼 서투르게 하니 되겠느냐’라며 계획과 실행의 불철저함을 타박하는 사람들이 첫손에 꼽히는 의심 대상입니다. 대개 정부나 기업에서 고위직을 지낸, 집안 뼈는 사람 중에 이런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계엄 발표 며칠 뒤 고위 경제관료 출신의 지인을 만났더니 대뜸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나. 실력이 형편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 ‘그러면 계엄 발령이 필요했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자, 당황하며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특성은 절대 위헌·위법의 무도한 내란 행위를 먼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내란을 성공시키지 못한 무능을 탓합니다. 논점 이탈의 전형적인 내란 옹호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내심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지만 실패해 못내 아쉬워하는 ‘위장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둘째, 내란을 실행하라는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군인의 무능을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인의 사명은 상부에서 명령하면 그게 옳든 그르든 따지지 말고 완수하는 것, 즉 까라면 까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심지어, ‘장군이란 자들이 국회에 나와 술술 불고 눈물이나 짜는 걸 보니 못 봐주겠더라. 전쟁이 나면 이렇게 군기 빠진 군을 믿고 잘 수 있겠느냐, 제대로 싸움이나 할지 모르겠다’라고 계거품을 뉘니다.

이런 축에는 독재정권 시절에 권위주의 문화에 찌든 군대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과는 아예 대거라도 하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셋째,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실시한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인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즉,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야당의 폭주를 참다 참다 못 견디고 일을 하려고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는 전형적인 허위 선동술입니다. 아마 시중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내란 옹호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승부 조작의 중대범죄가 상대 팀 선수의 경기 중 반칙

행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강변하는 꼴입니다. 그만큼 터무니없는 꾀변입니다.

넷째, ‘윤석열 패거리나 이재명 패거리나 그놈이 그놈’이라며 정치 불신론 또는 양비론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제 친척 중 90이 넘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랜만에 동생과 만난 차에 내란 사태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요즘 윤석열 때문에 화가 치밀어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푸념했더니, 동생이 “언니 너 무 스트레스 받지 마. 누가 돼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는 다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위로하는 척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원인 중에도 경중이 있는데도, 그런 걸 따지길 외면하면서 양비론과 정치 불신론으로 상황을 호도하는 수법입니다. 서로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기 어려운 친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섯째, 모임이 있을 때 ‘계엄이냐 내란’과 관련한 얘기는 화제에 올리지 말자고 미리 선을 긋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라면 논쟁적인 정치 문제로 모임의 분위기를 깨지는 것을 우려하는 충정의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난은 논쟁적인 정치 화제와 차원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네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일생일대의 대사건입니다. 어

느 모임이 됐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런 화제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람은 윤석열 비판론이 확산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공산이 큼니다. 비판론을 봉쇄함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내란범과 내란 행위를 옹호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

네 가지 독재 판별 기준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사람은 독재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레비츠키와 지블렛 교수의 말처럼, 제가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손자는 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난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스트레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도 내 주위에 숨어 있는 내란 옹호자를 쉽게 구별해 낼 수 있다면, ‘내란성 스트레스’의 강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지 않을까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내란성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와 기업이 합작한 CES 2025 값진 성과

전북 기업들이 미국 LA에서 열린 ‘CES 2025’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크게 확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총 197건의 상담, 59건의 협력채널 구축, 그리고 933만 달러 규모의 상담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은 전북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전북 기업들의 기술력을 더 강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CES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대이다.

따라서 CES 2026을 대비해 기업들이 R&D에 더욱 집중하고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도 차원에서도 CES 혁신상 수상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기술력 향상을 도와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CES 2025에서 ㈜아이팝이 ‘EmoTense XR 올인원 수트’로 USA TODAY가 선정한 ‘CES 2025 50선’에 포함된 것은 기술력뿐 아니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CES 2026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미디어 홍보, 현장 프로모션,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전북 기업들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해

외 바이어 및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CES 2025에서 이뤄진 협력채널 구축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접촉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개최,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CES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는 올해 부스 임차비, 디자인 제작, 항공·숙박비, 통역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하며 참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참가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CE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전북 기업들의 CES 2025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도와 기업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회성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지원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

CES 2026에서도 전북 기업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금요시선

그리움/송도정태천

설에 할머니는
아버지가 오기를
마을 언덕에 나와
기다립니다

설에 어머니는
내가 오기를
창문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이어져 오는
애절한 그리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씨투에스금융디자인 대표이사
시집 3권 발간
CHEZ NOUS 301과 팔칼국수,여백의 미
(에스24에서 구입가능)

독자광장

변함없는 거대한 역사의 증거, ‘고창 고인돌’ 새로운 미래를 열다



‘우리 동네에는 고인돌이 사방천지에 있었어’, ‘봄이면 고인돌옆에 쏙이 나고, 가을이면 쏙나던 자리에 벼싹도 나왔지’, ‘잡은 고기를 구워 고인돌에 상을 차려 먹기도 했어’ 고인돌 주변 죽림리 일대 할머니들의 옛 기억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은 현재의 인류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전 한낱 돌무더pile에 불과했다. 인류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고대사회에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석문화의 중심에 고창이 있었다는 사실은 비단 대단하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

고창군은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고인돌유적을 2000년 12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2008년 9월 고인돌박물관을 건립하였다. 박물관은 청동기시대 각종 유물과 생활상, 세계의 고인돌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한 5만7988㎡의 거대한 공원이며, 유적지는

죽림리 고인돌 442기와 도산리 고인돌 5기를 포함하여 총 447기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되어 있어 우리나라 고인돌 최대 밀집지이다. 규모의 방대함과 함께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거석문화 연구의 살아있는 장이 되고 있다. 또한 고인돌 축조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채석장은 고인돌 변천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책무가 있는 국가유산청과 고창군은 세계유산 등재 25주년을 맞은 올해 고인돌과 채석장 정밀실측사업으로 고인돌 유적 학술연구와 기초자료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3D 입체영상제작과 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고창군 간 고인돌 유적의 학술 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법국가 차원의 조사연구를 하고 있어 반갑고 고무인 일이다. 전국에서 유일한 고인돌박물관과 유적지 등 거석문화의 결

정판, 고창 고인돌이 세계적인 위상을 떨칠 보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 번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세계유산 활용한 관광사업 발굴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영향으로 건물, 교회, 광장, 요새 등 무형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다(多) 문화의 유산으로 2008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말레이시아의 말라카와 조지타운에는 전통 솥하우스(shophouse, 주택과 상점 겸용)를 활성화하여 기존 원주민의 경제활동을 테마로 관광 상품화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효과가 나타났다.

선사 시대 사회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1986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영국, 스톤헨지와 에이브러리 거석유적의 경우는 스톤헨지를 모티브로 지역과 세계유산의 이야기를 담은 책과 인쇄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유대를 증대시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고인돌 유적지에 접목하여 고창형 관광사

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다각적이고 트렌디한 국내외 홍보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31개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체계적인 유산보존과 활용 정책 수립과 함께 고인돌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내를 넘어 세계속에 고인돌을 알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세계문화유산 축전을 기회로 세계인을 고창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홍보와 각종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고창군은 선조들이 남겨준 역사와 전통문화,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가진 게 많은 고창이다. 고창군이 가진 보물들의 가치를 보존, 발굴하고 재창조하여 군민의 풍부한 삶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미래 100년 후세에 전하는 사명을 신명 나게 할 때다.

/정광진 고창군 세계유산과 고인돌유산 팀장

문수사 부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 1997년 7월 18일

-소재지 -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산190-1번지

-시대 - 조선시대



문화재 열전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연특별시 무주, 끊임없는 도전으로 희망을 일군다!

- ▶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등 체류인구 유입 관광자원 확충
- ▶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에 주력
- ▶ 서민경제 안정 · 농업 경쟁력 향상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자연특별시 무주가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주거와 에너지, 교육, 문화, 먹는 물과 교통 등의 사회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해 지역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으로, 인구감소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올해 무주군정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체류 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자원 확충

자연특별시 무주의 관광자원은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2025, 남대천교 경관분수 등)을 비롯한 안전 칠연지구(∼2025, 통안전돌레길 등), 부남 금강변(∼2025, 클라이밍체험장 등), 무주 생태모험공원(∼2025, 반딧불이 생태지 등), 구천동 33경(∼2025, 탐방로 조성 및 관광거점 개발) 등 각 읍면 대표 관광지를 명소화하는 사업을 비롯해 무주 향토산 산림복지단지 조성(∼2026, 전망원 등),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2025) 등이 뒷받침할 전망이다.

◆ 태권시터 무주 위상 강화

세계 태권도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2026 전시체험관, 편의시설 등) 추진과 함께 태권도 테마공원(2025∼2026 체험형 상품소품점, 3D체험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물품과 교육·취업·정주 기반을 마련할 태권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2028 태권도 특화 공교육 체계 구축 등) 추진은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TIP1. 태권브이랜드(2017∼2026)

무주를 최북미술관과 국민체육센터 사이 부지에 조성 중인 태권브이랜드는 동차형 태권브이 로봇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체험과 관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현재 태권브이랜드 내에 들어갈 로봇 구동 시험(12m, 3가지 품새, 60개 이상 동작 구현)을 완료한 상태로 '26년까지는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관과 비밀기지, 태권브이테마존, 포토존, 편의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태권도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 규모의 전국·도 단위 대회와 전시훈련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8.29∼31, 50여 개국 2천여 명 참가 예정 / 세계태권도연맹 주최)를 비롯한 8개 국내외 태권도 대회가 개최 예정이다. 또 무주 반딧불배 전국 마라톤

사업(거점스마트APC 신축, 사과선별장 2개동 설치) 등으로 무주군 전략 육성 품목인 사과 선별·유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작은 목욕탕 이용이 힘든 70세 이상 어르신(2,140명)을 위한 목욕비 지원 사업이 본격화(1인당 1회 5천 원, 월 2회 목욕비 바우처 카드로 지원)되며 주거취약계층 집수리도 지원(76곳,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장애인통합돌봄, 화재안전취약차 소방안전물품 지원(221가구, 스프레이형 소화기, 자동 소화패치 등)을 비롯한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460세대) 사업 등 추진에도 내실을 기한다.



◆ 살기 좋은 무주 조성

이외에도 맞춤형 평생 학습(평생교육원 운영) 등 개인과 지역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정책(장학사업, 특기적성 교육 등), 군민안전보행(무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 대상 40개 항목 보장) 추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및 정비, CCTV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군립요양병원 건립·운영(무주읍, 연면적 5,129㎡ 지상 3층 규모의 재할·치매 전문병원) 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무주 기반이 될 전망이다.



TIP2. 무주군립요양병원(올해 개원 예정)

무주군립요양병원(총사업비 247억 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연 면적 5,129㎡) 규모로 36개 병실, 126병상(치매전문 42병상, 일반 84병상)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한방치료실과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을 갖춘 예정이다. 무주군은 군립요양병원(재할·치매 환자 진료 및 치료·입원),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거점으로 보건의료원(협진 체계 구축)과 종합복지관(치매환자 사후관리, 치매 예방 교육), 평화요양원(치매 노인 통합돌봄, 치매 가족 상담 지원)을 잇는 공공의료 환경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대회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비롯한 축구, 골프, 검도 등 19개 종목 대회 개최도 확정된 가운데 새로운 대회를 유치(11개 대회 목표)하는데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 서민경제 안정화

무주읍 상권활성화 2년 차 사업(노후 간판 정비, 야밤도주, 폭박야장 프로그램 진행 등) 추진에 주력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을 들여 인구감소지역 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및 소상공인 육성(카드수수료, 온라인마케팅 등 지원), 로컬잡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지원에 주력한다. 냉난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203세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설비 설치 지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농업 경쟁력 향상

농업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경쟁력을 더한다. 신규로 과수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 시범, 원예작물 신기술 적용 소득증대 시범(재배환경 개선 등), 스마트팜 기술 도입(농작업 추종 로봇 등), 고랭지 채소 경쟁력 강화 시범(수출용 딸기, 여름 배추, 수박),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2025 무풍면 5,640㎡ 규모, 연동하우스 등) 등이 추진된다. 산지유통시설 확충



... [인터뷰] 황인홍 무주군수 ...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새해 화두로 ‘무실역행(務實力行)’을 내 놓은 황인홍 군수는 “올해도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 문제와 기후변화를 간과해서는 지역발전, 아니 생존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며 “무실역행의 자세로 무주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등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리스크 1위로 꼽히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 역시 가지고 있다”라며 “친환경 정책을 통해 기후행동 실천에 앞장서는 한편, 농업 분야에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재배 품목을 다양화하는 노력,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을 향한 기후복지지원(폭염·폭우·한파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유해환경 개선 및 대응)에 정성을 토대로 체류 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